

3부작 웹 드라마 기획안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게요

(가제)

제작	레퍼토리
극본	백진원
연출	백진원

▣ 줄거리

긴 생머리와 우유빛갈 피부를 지양하지만, 그녀에겐 시각장애인이라는 판정을 받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녀, 설수아와 미국에서 온 전학생 이재준과 풋풋한 이야기를 그린 성장가능 우정 청소년 로맨스이다.

▣ 기획의도

“너를 한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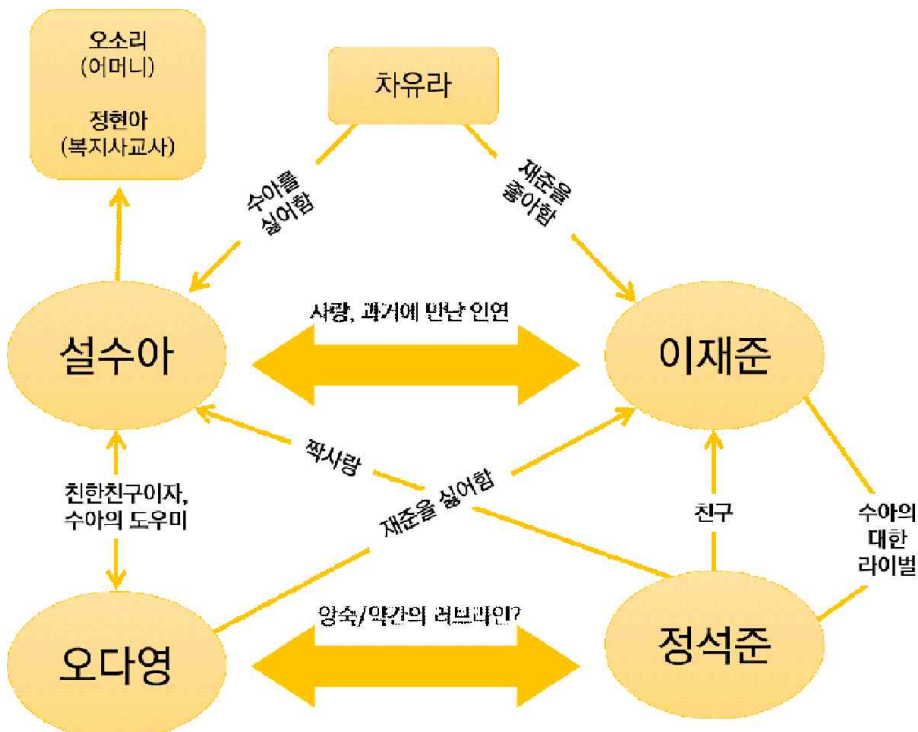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수아의 마음을 달래주는 성장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장애인의 틀을 벗어나, 시각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성장가능 로맨스를 그리고 싶었다. 이를 어른이 아닌, 풋풋한 청소년으로 설정하여 더 깊고 섬세하게 그려내고 무엇보다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으며 이를 통해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이별의 순간까지 말이다.... 이 드라마는 “당신에게 시각장애인이란?” 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라며....

▣ 장르

<로맨스>, <우정>, <판타지>, <드라마>

▣ 인물 관계도



▣ 캐릭터

▶ 설수아 (18살, 시각장애 3급 -2호/ 망막색소변성증 판정)

「 나는 파도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애...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거든 보이지는 않지만,
슬플 때 상처를 물에 깨끗이 씻겨주고, 기쁠 때는 더 요란하게
나를 반겨주거든」

바람처럼 살랑살랑 거리는 긴 생머리, 설렁탕 같이 뿌옇한 피부와,
사랑스러운 눈매, 오뚝한 코, 푹 부러진 입술,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난 예쁜 소녀이다. 하지만 이런 소녀에게 비밀이 있다.
그건, 나의 얼굴조차도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바뀐다. 수아는 어렸을 적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다. 수아에게 시각장애를 판정받은 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추정된다. / (작가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설정할 예정)

<시각장애 3급 - 2호>

- 양눈 각각 주시야에서 시야각 5도 이하 남은 경우를 뜻한다.
(망막색소변성증 환자 기준)어두운 곳에서는 전혀 활동이 불가능하다. 밤중에
가로등이 흰히 켜져 있는 길도 못 다닌다. 앞을 보고 걸으면 어린아이나
기타 장애물을 못보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기 일쑤다. 3급 정도 되면
허벅지높이까지도 못 볼 위험이 크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쥐약이다.

수아는 어릴 적 아버지는 재롱떨어 번 돈을 모두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자
술로 가정폭력을 늘 하곤 하였다. 이러한 것 때문인지 수아의 마음은 흡연을
하고 폐가 온통 검은색으로 덮인 듯 마냥 검게 타들어 갔다. 그러던 수아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자, 수아는 어머니와 홀로 지내고
있다. 어머니와 홀로지내면서 본인 앞가림을 정말 잘하며, 설거지와, 밥하기,
빨래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한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수아에게 “늘 미안해하고, 잘 커줘서 항상 고맙다”라고 느끼며 수아에게 모든 애정을 배푼다. 애정의 마법일까? 수아는 좀 더 힘을 내기 시작한다. 수아는 늘 낡은 미니 카세트를 들고 다닌다. 사실은 애정의 마법도 있지만 수아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그 낡은 미니카세트에 있던 녹음파일, 눈이 보이는 시절... 아마 수아의 초등학교 5학년때였을 것이다. 그때 기억 속으로 빠져본다. 과거의 정말 소꿉친구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수아는 그 친구를 짝사랑했다. 한번만이라도 꿈에서 만이라도 이 친구를 봤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곤 한다. 수아는 그 친구가 준 마지막의 녹음파일... 그 파일 안에는 그 친구의 마지막편지의 내용이였다. 수아에게 시각장애인 된 이유이기도 하다. 2011년 4월 20일 수요일 PM 6:00 해가 질려고 하는 이 시간... 수아가 본 마지막그림이며, 그 친구와 헤어지게 된 날이기도 하다. 수아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늘 생각한다. 바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어릴 적 남은 기억이라곤, 눈이 멀게 되기 전 그 친구에게 녹음파일을 받은 기억밖에는 없다....

- 수아가 시각장애인 된 날짜와 시간
< 2011년 4월 20일 수요일 PM 6:00 >

간략하게 녹음파일의 내용은 이러하다.

**“수아야, 내일이면 나는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가게 될거야.
늘 나랑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꼭 만나러 갈게
그니까..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줘”**

어떻게 보면 수아에게는 마지막이자, 삶의 무게를 주고 상처를 받던 그 많은 일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서로의 마음, 진심이 드러나는 목소리 이지 않을까? 싶다. 마음이 따뜻한 수아의 진심이 친구들에게는 전해진 것일까? 수아에게 늘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는 친구 (다영)이 있다. 수아가 두 번째로 믿음이 가는 친구이다. 다영이는 시각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심리상담을 해주는 심리상담가가 꿈이다. 그래서 수아가 다니는 복지센터에서 시각장애체험도 해보고, 더 열심히 알아가고 공부도 같이하면서 더 수아와 돈독한 애정을 표하고 있다. 이런듯 다영에게도 꿈이 있듯이, 수아에게도 꿈이 있다. 보지는 못하지만 냄새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아로마테라(세러)피스트이다. 줄여서 향기치료사라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불안과 공포와 극도한 긴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향기로 마음을
치유하고 더 삶의 의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꿈을 통해 수아의
긍정적인 사고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오고 나서,
재준이라는 남학생을 접하게 된다. 미국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
전학을 오게 된 것, 심지어 같은 반이다. 하지만 계속 재준에게 추한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재준과 사이가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진 것... 그리고
재준은 수아와 바닷가를 가게 된다. 바닷가에서 재준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듣고 있던 수아는 자신의 어린과거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설마? 이 재준이가..... 그 아이?는 아닐까?

***과연, 두 사람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또 수아가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 이재준 (18살, 미국에서 온 전학생)

「 태풍이 불어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네 옆에 꼭 있을게 」

잘생긴 외모와 집안의 재력도 좋은 전학생! 하지만 겁쟁이?? 이재준!

어릴 적 초등학교 6학년 가족과 이민을 가게 된다. 미국에서 혼자 적응도 못해서 늘 왕따이기 일수였다. 그리고 2018년 3월 현재...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새 학기 첫 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학생들의 한마디 "와... 잘생겼어" 넋이 나가기도 한다.

2018년 3월 02일 학교에서 선생님은 재준이를 소개시키고, 여학생들은 모두 재준이를 향한다. 남학생들은 별로인 눈치인 듯한데..... 소개가 마친 후 옆에 빈자리가 있던 "석준"의 옆 자리에 앉으라고 한다. 석준이는 밝고 희망찬 아이이다. 체육특기생이고, 공부는 못한다. 반면에 재준이는 공부를 잘하지만 체육을 제일 못한다. 그렇다 해서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다!

체육 중에서는 축구와 농구는 잘한다. 국가대표감이다.

다시, 돌아와서 3월 2일, 교과이동수업이라,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수아와 어깨를 부딪히게 된다..... 여기서부터 둘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부딪히게 된 후 수아가 엄청 놀라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게 된다.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도중, 수아를 도와주는 친구 (다영)이 나타나며, 재준이에게 버럭 화를 낸다. 재준이는 멘붕상태!!!

그리고... 어느 날, 수업에 늦어서, 교실로 향하고 있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 딱...딱... 딱... 딱.. 딱...

뭔 소리이지???

바로 시각장애이용 지팡이를 들고 있는 수아의 모습이 보인다.

재준은 그녀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파악하고 도와주면 저번에 그 날처럼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피하게 된다. 이때 수아가 발에 걸려 넘어진다.

재준은 수아를 걸쳐, 안아준다. 이때, 수아의 한마디

" 누구세요? "

재준은 그때 뭔가 UFO가 지나간 듯 뭔가 쿵 하고 내려지는 기분이다
바로, 두근두근 거리는 이 심장박동수를 말이다.

또한, 재준은....

늘 많이 생각하고, 남을 위해 더 신경이 쓰이고, 도와주는 심리치료사가
꿈이기에 수아가 더 애정이가는 것 같다.... 동정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재준이 수아를 좋아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준은 그러한 마음을 감추는 아이다. 내세우지도 못하고 얼굴에 맞지 않은
직업을 선택했기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더 당황스럽기도 하다. 주변의
친구들은 재준에게 이러하게 얘기한다.

“ 영화배우나, 모델 같이 예술계열에서 일할 것 같이 생긴 얼굴이라나
뭐라나!!!! ”

이러한 재준에게도, 특별한 만남을 만나게 된다.
학교 아닌, 바닷가를 좋아하는 재준은
수아를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둘은 친해지게 된다.
수아는 재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렇게 말한다.

“ 목소리만 들었는데 되게 잘생겼다 ”

서로 친하고, 때론 도와주고, 재준에게는 수아가 내 곁에 있는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하지만 마냥 행복하지 않은 터
수아가 갑자기 사라진 것!!!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터벅... 터벅... 터벅...
재준은 과연 수아를 지켜낼 수 있을까??

바닷가에서 과거의 대한 얘기를 들려준 수아에 대해 “어릴 적의 나와
비슷하다” 라고 생각한다.
재준도 보고 싶은 소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소녀가 수아이길.... 바라며...

“ 너의 마음을 알려 줄래?..”

과연 재준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소녀가 수아일까??

▶ 오다영 (18살, 수아의 어릴 적 친구이자, 도우미친구)

「 남자는 모두 다 늑대 아님 개야!!! 」

수아의 절친! 보디가드? 어릴 적부터 수영과 친한 사이였고, 수아의 부모님과 다영이의 부모님이 서로 아는 분이라, 누구보다 수아를 더 잘 아는 사람이다. 수아가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나서부터 수아를 정말 동생처럼 또는 자식처럼 잘 도와주고, 케어해준 매니저 겸 보디가드이다. 성격은 굉장히 과묵하고 활발성도 없지 않아있지만, 코믹성도 약간은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이다. 거칠게 욕을 하는 습성도 없지 않아 있다. 옛날에 코에 점이 났다는 이유로 점순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지금도 어릴 적 그 친구들이 같은 고등학교에 올라면서 똑같이 놀림받기 일쑤이다. 그래서 다영은 이러한 남자사람친구 측,... 남자아이는 모두 마음속에서 삭제하고 절단하기로 하는데...

“남자는 모두 늑대 아님 개야!!!! ”

그러던 어 느날, 다영이가 사라지자, 다영은 온몸과 힘을 다해서 수아를 찾아다니고 결국 다영이는 수아와 사이가 조금 멀어진다.

“내가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 진짜 수아야... 그러지마... 부탁이야...”

그래도, 평생친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수아와 화해를 하게 되지만... 친구밖에 모르던 다영이도 여자는 여자다! 남자가 아무리 싫어도 사실은 마음 속은 조금 다를 것이다.

수아와 재준사이를 넘나들며 방해를 하고 있는 방해꾼 석준이를 퇴치하기 위해 별의 별 수난방법을 다 이용하지만, 결국 이러한 인연인지??

석준이와의 뚜루루뚜 ♥♥♥♥ 뚜루루뚜 ♥♥♥♥

설마????

다영은 석준이와 러브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

▶ 정석준 (18살, 재준의 같은 반 친구이자, 체육특기생)

「 공부는 못해도, 운동은 자신 있다고, 다 덤벼!! 」

허세작렬!!!

재준과의 절친이자, 평생친구를 약속한 친구랄까???

체육특기생이며, 재준과 같은 반이다.

늘 공부는 못하지만 운동 하나는 잘한다고 우기는 녀석 중 하나이다.

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왕 싸가지이고, 성격은 괴팍하지만

얼굴은 좀 봐줄만하다.

주변여자들은 석준이가 브래드 피트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닮았다고

뭘 인기투표를 하지 않나?

늘 재준을 챙기고, 수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아와 같은 반이었고 수아를

짝사랑하기 시작한다.

“너랑 나 왠지 운명같지 않아?”

그러던 방해꾼 오다영??

다영이에게는 석준이 방해꾼! , 반대로 석준이에게는 다영이가 방해꾼??

다영이를 극토록 혐오하지만... 수아를 위해선 뭇든 하겠어!!!

하지만

도대체?

왜?

어떻게?

수아가 아닌 왜!, 오다영과 자꾸 마주치는 거지???

▶ 차유라 (18살, 부잣집 딸)

「 야! 정신차려 니네들은 내 상대가 안돼.... 」

HB 그룹 사장의 딸이다. 싸가지는 개 바닥이고, 개념은 1도 없는 개 싸가지이다. 별명은 불독이다! (불처럼 독하다 라는 뜻)

화장은 진하게, 독한 눈매까지...

와 심각하다... 심각해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양다리는 기본! 또한 주변 친구들에게 유라는 개싸이코일뿐이다.

또한 나보다 잘되는 건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친구들 앞에서 자기자랑 하는게 제일 신난다.

하지만...

이러한 유라에게도 사랑이??

고등학교 2학년 봄 새싹이 흙을 타고 나올 때쯤

유라도 재준의 모습을 보고 반해버린다.

그토록 좋아하던 디톡스도 다 버리고 항상 유라의 필수품인 거울도 떨어트릴 정도로 말이다.

그래서??

유라는 본격적으로 재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별짓을 다하지만

재준은 유라에게 마음이 없는듯하다

다시한번 유라의 독한 성격이 나오기 시작한다.

“ 설수아 가만안뒤... 눈 먼 기지배가 뭐가 좋다고!!”

유라와 수아의 관계는 정말 좋지 않다

유라는 본인이 갖고 싶은게 있으면 꼭 무슨짓을 해서든 가져야되는

성격이기에.. 시각장애인인 수아에게 지팡이를 숨기는 등

정말 유치뽕짝하게 또는 독하게 다리를 거는 행동을 하는 등

정말 나쁜 행동을 보인다.